

생각은 짧고 몸가짐은 살뜰하지 못했으니, 나는 불남 담뱃에 모란꽃 붉은 윤들듯 청신하게, 혹은 가을날 창공에 매달듯 날렵하게 살지 못했다. 그런 어리석은 내게도 새해는 다가왔다. 아직 집 맞은편 국도엔 가뭇 불빛이 환하고, 오키는 자동 차 한 대도 보이지 않는다. 집앞 얼어붙은 호수와 민들엔 며칠 전 내린 눈이 하얗고, 옅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 떠오르는 해는 볼 수가 없다.

적막하고 엄숙하게 한 해의 첫 아침을 맞지만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어디선가 해는 떠오르고, 새물은 종종 솟고, 새는 너울너울 날갯짓하며 남쪽을 향하고, 땅속에서 모란 자아의 뿌리들은 꽃망울을 준비 하고, 구름 속에서 여름에 내릴 빗방울들은 꿈틀거리고, 울해 사람이 빠질 젊은이들은 금빛의 시간을 꿈꾸며 지금은 단장에 빠져 있고, 이 새벽 젖네나는 어린 것들은 제 어머니 아버지 먼저 깨어나 막 피어난 연꽃처럼 방방걸릴 것이다.

내 심장은 이 우주에 생동하는 기쁨에서 나오는 기운을 빨아들이며 펌퍼펌퍼 뱅다. 나는 주저함없이 그 무상의 기쁨들과 입 맞춘다. 오, 내 앞의 입초, 꽃과 비유들이여, 실망하지 않겠노라. 그대들이 있어 나는 지지지만, 아울러 그대들이 있어 나는 실망이 없었구나! 여름이 빛을 불러 오듯, 배고픔이 식욕의 싱싱한 기쁨을 선명하게 하듯, 나는 그대 때문에 사랑의 고통을 알게 되



불자 세상보기

장석주
시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

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불꽃의 빛과 사랑과 충만함으로 그대를 으깨며 건너뛰며 달려 나가겠다. 가까이 나를 던져 나를 구하겠노라!

새해 첫날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추운 곳에서 밤을 지낸 집개들에게 뜨거운 물을 주고, 미명에 잠긴 산 능선들을 바라보며 누리의 새 기운을 호흡한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도 올린다. 나라엔 액운이 끼이지는 목은해는 어둠 속에 묻혔으니, 충직하고 부지런한 개의 해인 울려편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흔차 기도하는 동안 머릿속에 구름 위로 불끈

해가 떠오르는 심상과, 소(小)에 몇 백년 응크리고 있던 잠룡이 금비늘 번득이며 하늘로 떠오르는 심상을 그려본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자주 그려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시작'에 축복이 함께 하길 빌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꿈'이 울울창창 뻗어나가길 빈다. 아울러 올 한해 내 몸과 마음을 두루 다스릴 글귀로 청나라 문인 장주의 오골 불가무(傲骨不可無), 오심불가유(傲心不可有)를 마음 한 귀퉁이에 새긴다. 몸을 깨끗이 함은 없어서는 안 되나, 마음을 오만히 함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주변에서 입엔 아침을 달고

살고 몸은 뼈가 없는 듯 굴신(屈身)이 자유자재라 잘도 구부러지지만, 거꾸로 마음은 사투 뻗뻗해서 가난하고 못나 보이는 이웃을 업신여기며 제 잘난 줄만 알며 살아가는 이들을 여럿 보았다. 그 품성이 속되고 비천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다. 그들을 거울삼고 각박과 탐욕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보다 더욱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자주 하여 몸은 오동나무처럼 강건하게, 마음엔 청품(淸品)과 미풍 이는 불남과 같은 운유한 인격이 담기도록 애써야겠다.

저 잘난 줄만 믿고 앞뒤 분별없이 달려가는 자는 필경 남에게 누를 끼친다. 저를 돌아보는 분별심을 가져야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에서 저를 돌아보는 분별심이 솟아난다. 기도는 고독의 오묘한 송고함 속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기도 중에서 기복(祈福)의 토로를 되풀이 하는 것은 낮은 기도다. 제 삶을 응송(應誦)하고 제 품격에 향기를 더하는 기도는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추고 옛 경전을 널리 섭렵하여 제 마음을 여미는 것과 같다. 옛사람은 하루의 계획으로 파초를 심고, 한 해의 계획으로 대나무를 심고, 십 년의 계획으로 버들을 심고, 백 년의 계획으로 소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새해 첫날의 기도는 파초, 대나무, 버들, 소나무를 한꺼번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자의 눈

2001년 3월 어느 날 지울 스님은 '산이 아파 우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스님은 그 산과 그 속에 깃든 듯 생명들과 약속을 한다. '지켜 주겠노라'고. 그리고 스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섯 차례나 단식을 했고, 급기야 병상에 몸을 누였다. 이 상황에서 다음 질문은 대단히 잔인한 일이 될 것이다. '지울 스님은 과연 약속을 지켰는가?'

하지만 이 물음에 답할 사람은 지울 스님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울 스님을 내몰았기 때문이다.

지울 스님의 입장을 지지하는 환경이나 불교계조차도 천성산보다는 '지울 스님 살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알량한 도덕적 방어 차원을 넘어서서 단호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님은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들 마음속에 천성산이 시퍼렇게 살아있노라고.

병상에 누운 지울 스님을 보며

사실 지울 스님의 문제 제기는 천성산에 국한될 사안이 아니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해법을 담은 이나 구호가 아닌 삶의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지울 스님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든 비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엄동애 반팔 옷을 입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말아야 한다. 자본과 개발의 관성은 그러한 도덕적 방종을 자양분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소한 현 단계에서 소비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고상한 형태의 가치도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

생태 가치는 개발의 이익에 비해 비가시적이고, 거대한 시간의 사이클 속에서 발현된다. 심미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 평등의 고통 담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DS 조차도 인구 감소의 방책으로 반기는 과격한 인간 혐오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결론 삼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지울 스님이 개발이라는 거대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동안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 않았는지.

윤재학(동화 작가)



이렇게 들었다

사교육비

"하잘 것 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게 해서 안 된다. 방탕과 사치를 배워 탐욕이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익히고 배우되, 이를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법구경>

연간 사교육비 12조원을 쓰는 나라.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나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나라.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06년 교육 현주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 학생은 모두 1만6446명이었다. 6년 세 10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초등 학생의 경우는 30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른 지난해 전체 유학비용은 4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조기유학의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시험과 진학을 위한 교육만이 우리 교육의 전부가 되어 갔고 있다. 사교육에 자녀의 미래를 맡기면서 불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에 한 자녀로 만족 아닌 만족을 하는 형편이다.

이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하자. 입시위주의 단순 지식습득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의 삶을 가꿀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은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 잔뜩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그 아이의 몫이 될까?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교육에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김지현(현재부 기자)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바란다

지속적인 캠페인 되길

군포교의 최전선에 있는 입장에서 현대불교와 군포특별교구가 함께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

군중장교 1명이 일주일에 적게는 7번, 많게는 10번이 넘게 법회를 불 정도로 군포교 현실이 아직까지 열악하다. 군법사가 매년 장병 위문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넉넉한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문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겨울은 군생활 하기에 가장 어려운 계절이다. 개신교의 경우 사랑의 온차 나누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도 장병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유가 된다면 군법사가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법문 및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기자재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빔 프로젝터, 전자오렌지 등의 교육 기자재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면 영상세대인 장병들에게 더 효율적인 포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현지에 있는 군법사들의 의견을 자주 청취해 군법당과 기업, 가정, 사찰을 연계한 결연 체제가 잘 구축되어 군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민재(3군단 군법사)

누구나 의무적으로 동참했으면

아들이 군생활을 했을 때 군법당에서 마음 잡고 열심히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최전방 군법당에서 자원봉사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군법당에서 초코파이 하나에 좋아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전진불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매년 위문품을 마련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현대불교'의 캠페인이 잘 되어 일반 기업들이 군 포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문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한 최전방 대대급에서는 아직도 군법사 없이 법회 보는 곳이 많다고 들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법사가 없는 법당, 대대급 이하 열악한 환경에서 법회 보는 법당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한가지 더 기대를 한다면 보다 많은 불자들이 군 포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후원을 했으면 한다.

김법연(군법당 자원봉사자)

군포교 새모델 구축 '기대'

군법사로 20년 이상 군포교에 헌신해 온 나로서 이번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 기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군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전역 군법사의 모임인 예비역 법사회를 통해 물질적 지원도 하겠지만 법사가 없어 법회를 보지 못하는 법당에 직접 찾아가 부처님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고 싶다. 군의 현실과 장병들의 특성을 가장 잘 알기에 그 누구보다 군 포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업들과 군법당, 사찰 간의 결연 체계를 확립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 관계를 만들어 군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군포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군 장병들이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불자라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정선진(예비역 법사)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르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책자의 신비

산소(음택)중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보다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성지관음회

삼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한국 불교 법사 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익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4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복지 행정정보 보호반도록 지원합니다.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가능)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